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님 선종



가난한 이들의 벼로 일생을 살아오신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4월 18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종하셨습니다. 노숙자, 행려자, 알코올 의존증환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1987년 8월 29일 신림동에서 문을 연 요셉의원에 몸을 담은 선우경식 원장님은 봉사자,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43만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어 사회로부터 '한국의 슈바이처' '노숙자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 왔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은 요셉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며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었고 육체적인 질병치료는 물론,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나누어주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쉼터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그들의 재활을 위해 온몸을 바쳐 봉사를 한 분입니다.

4월 21일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님 집전으로 올려진 선우경식 원장님의 장례미사에는 염수정 주교님, 김운회 주교님과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우들, 그 밖에 그 분을 아끼고 사랑하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의 선종을 보고 언론기관에서는 '영등포 슈바이처 사랑 남기고 떠나다(조선일보 08. 4. 19)' '노숙인의 슈바이처 청진기 내려놓다(한국일보 08. 4. 19)' '영등포 슈바이처 하늘로 왕진가다(동아일보 08. 4. 19)' '영등포 슈바이처 사랑은 사랑을 낳고(중앙일보 08. 4. 21)' 라는 기사를 실어 고인이 살아 온 사랑의 삶을 기렸습니다.

끝까지 가난한 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